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교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 매일 미사에 보면, 날짜 뒤에 (녹), (홍), (자) 이런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색을 구분하는 이유와 색깔별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대림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이어지는 일 년의 전례력은 각 날짜에 모두 특정한 색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대림 세 번째 주일인 오늘은 (자)라는 표시로 보라색을 배정합니다. 이 같은 색들은 그날 전례의 특성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각각의 색깔이 고유한 상징과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도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흰색을 보면서 순수함을 떠올리는 식으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색채가 가지는 이와 같은 특별한 의미들을 받아들여서, 제의나 그 밖의 전례 용품에 적용해왔습니다. 미사를 집전하는 사제가 입고 있는 제의의 색만 봐도, 전례 주년에 따라 진행되는 그리스도교 삶의 의미를 겉으로도 효과 있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5항 참조) 최근에는 전례 용품뿐만 아니라, 성전 내 조명이나 화면 등에도 다채롭게 활용하면서 전례에 참여하는 교우들이 전례의 의미를 더 깊게 되새길 수 있도록 돕는 시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례에 활용하는 색은 역사를 거치며 점점 늘어 왔습니다. 초기 교회에서는 아예 특정한 색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흰색을 필두로 점차 늘어났고, 현재 6개 정도의 색으로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색을 언제 사용하는지와 관련하여, 교회의 공식 문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함께 살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현행 전례 규정은 각 주교회의가 민족 문화와 전통에 맞는 전례 색깔을 결정하여 교황청에서 인준을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위령 미사와 장례 예식에 삼베 색과 (가톨릭대사전, 전례북



대림 시기에 사용되는 보라색을 제의와 대림초는 물론, 화면에도 다채롭게 사용하는 모습. 사진 김동성당 제공

항목 참조), 흰색을 추가하여 쓸 수 있게 했고, 특별히 성대하고 기쁜 전례에서는 황금색을 쓸 수 있게 했습니다. (한국어판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6항 부속 설명 참조) 이렇게 제의 색만 보아도 그날 전례의 성격을 알 수 있으니, 그에 합당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색과 상징	사용 시기
흰색 영광, 순결, 기쁨을 상징	주님의 부활 시기, 성탄 시기, 그 밖에 수난에 관계된 거행을 제외한 주님의 축제일, 복되신 동정 마리아, 거룩한 천사들, 순교자 아닌 성인들의 경축일, 모든 성인 대축일, 성 요한 세례자 탄생 대축일,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빨간색 주님의 열정적 사랑과 피를 상징	주님 수난 성지 주일과 성금요일, 성령 강림 대축일, 주님의 수난 전례, 사도들과 복음사자들의 천상 탄생 축일, 그리고 순교 성인들의 경축일
초록색 생명의 희열과 희망의 색	연중 시기
보라색 참회와 보속을 상징	대림 시기와 사순 시기, 죽은 이들을 위한 시간 전례와 미사
검은색 죽음을 상징	관습에 따라 써 온 곳에서는 죽은 이들을 위한 미사에 사용
분홍색 기쁨 때가 온다는 희망을 상징	관습에 따라 써 온 곳에서 기뻐하여야 주일 (대림 제3주일), 즐거워하여라 주일(사순 제4주일)에 사용

사용 시기는 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346항 참조
색 상징은 서울주교 2017년 8월 13일 자 '교리산책' 참조